

소멸과 잔류(殘留), 산업 이행기의 풍경으로 읽는 한강 『검은 사슴』

Extinction and Remains, Han Kang's *Black Deer* Reads as a Scenery of the Industrial Transition

정주아*

국문요약 이 글은 한강의 첫 장편소설인 『검은 사슴』을 산업이행기 광산업의 구조 조정에 따른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삶의 파괴라는 관점에서 읽어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업이행기’는 주력 산업의 세대 교체를 나타내는 단계라 독립적으로 언명되지만, 구산업이 소멸하고 신산업으로 대체되면서 사회 변화를 따르지 못해 ‘남겨진 자’들의 삶이 대거 파괴되는 구조적 폭력이 생겨나는 시기이다. 한강의 『검은 사슴』은 대규모의 국가적 부양에 잇달아 잔혹한 국가적 구조 조정을 받으며 황폐화된 탄광촌을 배경으로, 한때 산업역군으로 칭송받던 이들이 사회의 잉여물로 취급 받게 되는 구조적 전환을 그려낸다. 이 글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논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는, 광산촌을 떠나온 이들과 남은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부채감과 죄의식이다. 작가는 가난과 죽음을 피해서 가족을 떠난 존재들이 ‘그곳’에 남겨둔 존재들 때문에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을 그린다. 가출하거나 실종된 광부 딸들이나 해체된 가족의 서사가 그 핵심을 이룬다. 다른 하나는 오직 산업의 부양만을 목표로 수많은 인명 사고는 사회적으로 묵인하는 동안 죽음이 일상화된 삶을 견뎌야 했던 이들을 향한 윤리적인 애도이다. 산업이행기의 관점에서 본 광산업의 성쇠는 신체적·정신적 착취에 존재론적 착취까지도 더해진 폭력적인 사건성을 내포한다.

핵심어 한강, 검은 사슴, 산업 이행기, 광산업, 강원도 태백, 석탄산업 합리화

- 차례**
1. 산업 이행기와 광산업
 2. 소멸된 산업, 지속되는 삶
 3. 죽음의 일상화와 장소성의 복원
 4. 이행기의 윤리

량』(1995)부터 한강에게는 신인임에도 제 나이답지 않다는 평가가 따라 다녔다. 첫 소설집의 해제를 쓴 김병익은 20대의 젊은 작가 한강의 작품들을 두고 “왜 것처럼 지쳐 있고, 헤매며 지치고, ‘이곳 아닌 어느 다른 곳’으로, 그것도 아무런 ‘희망’ 없는 길을 떠나서는, 어둠의 세계 속을 표류하는 앞 세대의 고생스러운 길들을 밟고 있을까”라고¹ 자문하고 있다. 작가 생활 초기 한강의 글쓰기에 던져졌던 이 인상은, 한국문단에 노벨문학상을 안긴 대표적 중견 문인이 된 현재의 한강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듯하다. 5.18 광주를 제재로 한 『소년이 온다』(2014), 제주 4.3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2021)에서 보았듯이, 그녀의 글쓰기는

1. 산업 이행기와 광산업

『검은 사슴』(1998)은 작가 한강의 첫 장편소설로, 가상의 탄광지대인 ‘황곡’으로 떠났다는 한 실종 여성을 찾아 두 인물이 탐문해 나가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등단작을 비롯하여 초기 단편소설들을 묶은 첫 소설집 『여수의 사

¹ 김병익, 「희망 없는 세상을, 고아처럼」, 『여수의 사랑』, 문학과지성사, 2012(재판), 261쪽.

특정한 과거의 시공간을 향하고 ‘그때 그곳’에 남은 영혼과 ‘그때 그곳’에 영혼을 빼앗긴 사람들을 그려낸다.

첫 장편소설인 『검은 사슴』은 특정한 시공간이 품은 사연과 그곳에서 자라난 사람들의 내면을 주목하는 작가 특유의 창작법이 일찌감치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작중에 등장하는 탄광지대 ‘황곡’은 강원도 태백 지역을 모델로 삼았다. 태백은 건설 및 제조업 규모가 성장하는 산업화 시기에 번성했던 도시이다. 강원도 영동의 석탄산업이 황금기를 맞았던 1970년대 정부는 본래 삼척군에 속하던 황지읍과 장성읍을 분리·통합해서 1981년 태백시로 승격시켰다. 유입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광산 지대가 그러했듯이 광산업이 위축되면서 극적인 변모를 겪게 된다. 작중 인물의 입을 빌려 작가는 황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영은 명윤에게 이 도시가 원래는 탄광이 밀집된 두 개의 읍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설명해주었다. 인접한 두 읍의 인구가 합하여 십이만에 달하자 전격적으로 통합되면서 시로 승격되었다는 것이다.

80년대 중반 들어 주연료가 석유가 가스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연탄의 수요가 격감하였으며, 캐면 캐수록 적자인 탄광들을 극소수만 남기고 폐광시킨다는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가 발표된 것이 88년이었다고 인영은 설명했다. 89년부터 실시된 합리화 사업은 97년까지 전국 삼백육십삼개 탄광 가운데 이백삼십칠개를 폐광시키도록 진행되었다고 했다. 그 결과 이제 황곡에 남은 광업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석탄공사와 한 유명 기업의 민영탄광까지 두 군데뿐이며, 인구는 한창때의 절반인 육만으로 줄었다는 것이었다.

그 극적인 생성과 몰락의 과정을 경험한 도시답게 황곡의 거리는 살풍경했다. 십이만이 살 수 있도록 팽창되었던 공간에서 절반의 사람들이 빠져나갔으니 도시는 헐거울 수밖에 없으리라.²

앞선 인용에서 보듯 작중에서 황곡은 ‘극적인 생성과 몰락을 경험한 도시’로 설정되어 있다. 이른바 ‘석탄산업합리화’ 조치 때문이다. 대한석탄공사법(1950년), 광업법(1951년) 등이 제정된 이래 광업은 농업, 어업, 축산업 등과 함께 국가의 4대 산업 중 하나로 꼽히던 국가 기간산업이다. 1960년 초에 대한석탄공사가 독일과 광부 파견 각서를 교환한 이후 서독으로 광부를 파견하던 사업은, 60년대 중반에 이르면 해외개발공사가 담당하여 광부를 파견한 뒤 외화를 벌어들이는 국가사업이 되었다.³ 이후 연탄이 대중연료로 폭넓게 쓰이기 시작하면서 석탄산업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몇 차례의 연탄파동과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정부는 ‘주유종탄(主油從炭)’에서 ‘주탄종유(主炭從油)’를 오가며 정책을 번복하게 된다. 특히 1970년대 초 석유파동이 일어나자 “생산 극대화” 방침을 세우고 채굴량 증대를 장려한다.⁴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시행된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는 석탄산업이 몰락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도시에 맞는 깨끗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⁵ 그러나 산업이 진행될수록 늘어나는 광부의 인건비와 임금 관련 분쟁 등에 따른 적자가 자체 인력에 의존하는 석탄산업을 버리고 수출에 의존하는 석유를 선택하게 했던 이유로 알려져 있다.⁶ 1960~80년대에 호황을 누렸던 광업은 호황기의 정점에서 곧바로 적극적으로 축소되어야 할 처지에 놓인 산업이 되었다. 기간산업으로 삼아 부양한 것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시행한 것도 모두 국가가 주도한 일이다.

주지하듯 ‘이행기’(transition period)란 개념은 특정한 한 시기가 종결되고 질적으로 다른 한 시기로 넘어가는 과도

한 출판사에서 1998년에 발간되었다. 이 글에서의 인용 및 쪽수 표기는 2017년 판본을 따르기로 한다.

3 정연수, 『탄광촌 풍속 이야기: 산업시대의 자화상』, 북코리아, 2006, 29쪽.

4 김아람, 「1960~1970년대 석탄산업 정책과 동원탄자」, 『역사문제연구』 42, 역사문제연구소, 2019.10, 32쪽.

5 위의 책, 336~339쪽 참조.

6 홍춘봉, 『탄광촌 공화국』, 노동일보, 2002, 113~114쪽.

2 한강, 『검은 사슴』, 문학동네, 2017, 142쪽. 『검은 사슴』의 초판은 동일

기를 일컫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근대 이행기’처럼 선적인 시간의 단절적 흐름 속에서 생겨나는 혼종적인 중간 단계를 설명하는 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가령 정치사회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처럼,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건을 변별하고 인식의 전환이나 피해의 구제를 고민하는 윤리적 실천의 시간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⁷ 이상의 용례는 ‘이행기’라는 용어가 한편으로는 개별 인간의 의지로는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의 흐름과 그로 인해 변화하는 세태를 포괄하는 것이되, 다른 한편으로는 기계적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자발적 단절’을 선언하고 질적 변화의 양태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려는 적극적인 의지 또한 포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간의 변화가 초래하는 세태와 그에 대한 개입 의지를 동시에 포괄할 수 있다는 점은, 이 글이 ‘산업 이행기’라는 낯선 조합의 용어를 표제로 삼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가령 인터넷 시대의 총아인 플랫폼 산업은 이 표제의 의미를 이해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인터넷 통신망의 보급을 그 출발이라 보았을 때, 2025년 현재 우리는 이미 인간 사이의 만남과 소통을 디지털 네트워크상의 접촉으로 바꾸어 놓은 시공간 속에 놓여 있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데 불과 한 세대가 걸리지 않은 셈이다. 이 변화는 과학기술·사회·경제·문화 등 여러 방면에

7 본래 국제형법상의 개념이었던 ‘이행기 정의’는 기존의 ‘과거사 청산’이라는 용어를 대체하는 학술적 개념으로 쓰인다. 이때 ‘정의’의 구체적인 ‘관철’ 방식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응보적 정의’, 진상규명과 화해를 바탕으로 하는 ‘화해적 정의’, 경제적 보상 및 법률·의료적 치료를 포괄한 회복을 통한 ‘보상적 정의’ 등으로 요약된다(이영재, 「이행기 정의의 본질과 형태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2(1),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2, 136~138쪽 참조). ‘이행기 정의’는 그 어원이 국제형법에서 유래했듯이, 현재에도 5.18, 4.3 등 국가 폭력에 의해 생겨난 사건을 법률적·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가는가를 논하는 개념어로 사용된다. 이 용어는 ‘과거사 청산’이라는 관점보다 중립적이며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그 법적·제도적 구제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최정기는 5.18을, 기억투쟁을 통해 구성되는 이행기 정의의 사례라 보고 이때 피해자 중심의 보상 구조가 갖는 한계를 ‘배제된 경험’, ‘증명할 수 없는 기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최정기, 「과거청산에서의 기억전쟁과 이행기 정의의 난점들」, 『지역사회연구』 14(2), 한국지역사회학회, 2006, 3~22쪽 참조).

서 그 질적 변모의 양상과 그로 인해 달라진 세태에 초점을 둔 이행기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나 동시에, 이 거대한 변화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을 폐업과 실직의 상태로 과거의 어느 시점에 떨어진 채로 내달아간 결과이다. 이러한 ‘잔류’의 형태는 부적응, 소외, 도태, 낙오 등 다양한 표현으로 지시되지만, 본인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고 해서 그 책임을 어떤 개인에게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때 ‘산업이행기’라는 관점은 이렇듯 무고한 잔류의 형식을 의식적으로 환기하고 그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의지의 표명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에 한강의 『검은 사슴』을 산업 이행기의 서사로 읽는다는 것은 광산업의 쇠락과 그 소멸 과정에서 남겨진 잔류의 양상을 읽어내는 작업이 될 것이다. 작중에서 황곡은 “정부의 폐광 조치로 이미 반 이상의 인구가 떠나버린 도시”로,⁸ 즉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로 타격을 받아 공동화된 도시로 명명된다. 이 소설의 주요 인물들은 떠난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누군가를 남기고 떠난 인물이라는 특징이 있다. 작가는 이에 상실감과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과거의 한 시점에 매여 있는 인물들을 황곡으로 불러들인다. 이후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두 개의 논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하나는 광산업의 흥망에 따라 유동하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한 서사들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고향 혹은 가족으로부터의 탈출에 대한 이야기, 가출하거나 실존된 광부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 이는 곧 이들이 떠난 곳과 남기고 온 사람들에 대한 서사가 되기도 한다. 떠난 이들과 남은 이들 사이에는 부채감과 죄의식이 존재하며, 이 때문에 떠난 이들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로부터 두 번째 논점이 마련된다. 『검은 사슴』은 존재와 부채의 이분법을 부단히 뒤섞고 경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쓰였다. 회상의 플롯은 물론이고, 인물들의 광기와 환상, 작중의 은유와 상징 모든 것이 인식상의 경계를 지우고 재배

8 한강, 『검은 사슴』, 30쪽.

치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산업 부양의 목표 아래 수많은 인명 사고를 사회적으로 묵인하고 누군가의 죽음을 딛고 일상을 이어나가는 상황, 즉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폐광 지대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는 데 유리하다. 부재하는 것들이 현재를 떠받치는 힘이라는 의미도 된다. 이에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이들 그리고 두고 온 존재들에 대한 윤리적 애도를 담은 서사가 진행된다. 산업이 행기의 관점에서 본 광산업의 성쇠는 신체적·정신적 착취에 이어 존재론적 착취까지도 이루어진 폭력적인 사건성을 내포한다.

2. 소멸된 산업, 지속되는 삶

『검은 사슴』은 두 남녀가 한 명의 실종여성을 찾아 탄광도시 황곡으로 떠났다가 돌아오는 귀환의 여정을 축으로 삼는다. 대중적으로 보다 알려진 『채식주의자』(2007),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의 후속 작품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한강의 소설은 주인공의 자리가 비어 있는 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실종, 죽음, 질병 등으로 주인공이 부재하거나 침묵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서사가 마치 퍼즐처럼 주변인물에 의해 조합되는 방식은 이미 한강의 첫 소설집 『여수의 사랑』(1995)부터 나타난 것이다. 『검은 사슴』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모든 상황은 제약회사 사환으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인 듯 보였던 ‘의선’이 갑작스레 대낮에 알몸으로 거리를 달리는 광기를 보인 데에서 시작된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그녀가 흩뿌려 놓은 단서를 찾아 잡지사 기자인 ‘인영’과 작가 ‘명윤’이 동행해서 의선의 고향인 탄광도시 황곡으로 떠난다. 실종자를 찾겠다고 직장에 말할 수 없었던 인영은 탄광지대의 사진 작가 ‘장’(장종욱)을 취재한다는 명목으로 출장 허가를 받아낸다. 의선의 행방을 찾는 두 인물과 황곡의 변천을 지켜본 사진작가 장의 체험이 동시에 서술되

면서, 작가는 탄광도시 황곡 구석구석의 풍경을 재현하고 역사적인 변천을 모두 담아낼 수 있게 된다.

앞서 태백의 탄광지대가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로 인해 위축되었다는 논의를 한 바 있지만, 그 진폭을 무엇보다도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의 수를 집계한 대한 통계이다. 석탄수요의 증가와 석탄 증산 정책의 영향으로 태백, 삼척, 정선 등의 탄광촌은 1950~1960년 사이에 300퍼센트 이상의 인구증가율을 보였다고 알려져 있다. 정부가 화전 금지령을 내리면서 산속에 살던 화전민도 탄광으로 합류했으며, 농부도 탄광이 돈을 번다는 소리에 이농하여 전업했다고 한다.⁹ 탄광 도시의 번성은 학교와 학생의 숫자로도 입증된다. 인구의 유입으로 학교가 부족해서 2부제 수업을 했다거나, 운동회도 이틀에 걸쳐 진행했다는 일화는¹⁰ 현재의 시점으로서만 놀라울 따름이다. 태백시의 인구수가 1980년대에 십만 명, 1987년 최대 십이만 명까지 올랐음을 감안한다면, 석탄산업합리화 조치의 급작스러움을 실감할 수 있다. 작가는 작중인물들의 대화 속에서 합리화 조치 이후의 지역 상황을 물으며 ‘그때 그분들은 어디로 가셨느냐’며 질문을 던지고 있다.

“쫓겨날 때 막막하기야 했겠지만, 다 문 닫은 게 잘됐어요. 어디서 뭘 해도 막장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사고로 죽고, 사고로 안 죽으면 진폐로 죽고……죽고, 죽고, 죽을 바에는.”

“글쎄요.”

전방을 주시하는 장의 옆얼굴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굵은 목소리는 울림이 컸다. 마치 습기 찬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당신 같으면, 죽을 만큼 부러먹다가 필요 없게 되었으니

9 정연수, 앞의 책, 26~28쪽.

10 위의 책, 28쪽. 당시 삼척 도계초등학교, 태백 장성초등학교는 전교생 3,000명 이상의 규모로 강원도 내에서 가장 큰 학교였으며, 1965년 도계 초등학교는 4,300명의 학생을 감당하지 못해서 운동회를 이틀에 나누어 진행하고 청군과 백군뿐 아니라 홍군까지 포함하여 3개의 팀으로 나누어 야만 했다고 한다.

아무런 대책없이 쫓아내버린다면 어땠겠소.”¹¹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던 한 장소가 저렇듯 갑작스레 소멸의 운명을 겪었다면, 그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은 『검은 사슴』을 관통하는 핵심적 질문이다. 폭력적인 정책의 전환으로 인해 한순간에 생업을 잃은 사람들의 절망, 다른 생업을 찾아 지역을 떠났어야만 했던 사람들, 사실상 추방되는 이들의 위기감이 저 급격한 인구 감소의 그래프 이면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후 광산업은 내리막을 걸어 오늘날 사실상 소멸되었지만,¹² 그 시공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에 『검은 사슴』은 석탄산업의 쇠락을 거시적으로 조망하되, 그 시절 저마다 다른 자리에 놓여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특히 고향과 가족을, 기실 그 가난의 구조를 벗어나고 싶어 했던 딸들의 이야기가 하나의 축으로 놓여 있다. 주인공 의선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의선은 황곡에서도 더 깊은 깊은 화전민 마을에서 광부 임씨의 딸로 태어났다. 임은 매몰사고로 죽은 동료 정의 아내와 동거하면서 친딸인 의선을 낳았다. 매몰 사고로 남편을 잃은 이후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아내가 의선이 아홉 살 나던 해 가출하자, 임은 아이들을 산골마을에 팽개치고 아내를 찾아 떠돈다. 광산에서 돈을 벌면 아내를 찾는 데 써버린다. 부모 없이 남의 밥을 얻어먹으며 발달 장애가 있는 배다른 오빠까지 돌보던 의선에게 일상 은 곧 기다림이었다. 어찌다 돌아온 아버지가 다시 어머니를 찾아 나서는 일이 반복되자 의선은 열세 살이 되던 해, 오빠를 산골 집에 혼자 남겨 두고 가출한다. 그때까지 학교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난 이후이다. 재봉 주방일 등을 전전하며 서울살이를 견딘다.

사진작가 장의 아내 미희 역시 광부의 딸이다. 탄광에서 매몰 사고를 겪고 극적으로 구출된 아버지가 진폐증을 앓다가 사망하고 아이까지 유산하자, 그녀는 남편에게 제발 광산을 벗어나자고 애원한다. 광고 사진 따위에는 없는 육체가 담긴 사진이 광산에 있다고 믿는 장은 손수 탄갱의 작업현장까지 들어가 사진을 찍고, 그러다 다치기를 반복한다. 더 이상의 불안을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이혼을 요구한다. 몸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장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서울로 향한다.

황곡은 아니지만, 인천의 연탄공장 입구의 골목에 살았던 명윤의 여동생 명아 역시 유사한 경우이다. 명윤은 학창시절, 탄가루가 날리는 집과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집안의 폭군이 된 아버지를 피해 밤늦게 귀가하곤 했다. 집을 벗어날 수 없었던 명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명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일뿐이다. 열여섯이 되던 해 명아는 집과 가족을 버리고 가출한다. 오빠인 명윤이 집에 데려다 놓곤 했으나, 명아는 유흥가를 전전하며 끝내 연락을 끊고 실종되고 만다. 이들은 모두 떠나거나 실종되어 사라졌기에 결과적으로 부재하게 된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서울살이를 홀로 견디다 끝내 정신 이상이 되고 끝내 자살하는 의선의 사례가 보여주듯 그 가출의 말로는 하나같이 불행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설의 표제이기도 한 ‘검은 사슴’의 일화는 탄광지대 사람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압축하는 이미지가 된다.¹³ 의선의 아버지인 임이 발화자로 등장하는 검은 사슴의 일화는 두 번 등장한다. 첫 번째는 장이 임과 막장에 매몰되었던 순간이다. 이른바 갱도 내로 물이 터져 나오는 ‘물통사고’로 막장에 물이 차오르며 동료들이 눈

13 그 일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석지대에서 홀로 사는 검은 사슴들이 있다. 암석을 뜯어먹는 훌륭한 송곳니와 앞을 밝히는 뿔을 지닌 이 동물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깥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는 것이다. 광부들에게 그 소망을 부탁하지만 광부들은 사슴에게 출구를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대신 위협이 되는 송곳니와 뿔을 제거한 뒤 도망치며 통로를 막아버린다. 이에 먹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된 검은 사슴은 말라 죽는 다.

11 『검은 사슴』, 231쪽.

12 「마지막 국·공영 탄광 역사 속으로. 도계광업소, 89년 만에 공식 폐광」, 『경향신문』 2025.06.29.

앞에서 죽어가는 가운데, 임은 장에게 검은 사슴의 일화를 들려준다. 평생토록 지하 암석지대를 헤매다 건강한 몸을 빼앗기고 말라죽는 검은 사슴은 물론 그 자체로 광부들의 운명을 함축한 것이다. 작가는 황곡을 떠나기 타지에서 취업하기 위해 이력서에 붙일 사진을 찍으러온 사내의 뒷모습을 장의 시선을 빌려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인생을 쥐어짜서 국물을 우려내고 난 딱딱한 고깃점처럼 사내의 발걸음에는 풀기가 없었다. 만일 저 사내에게도 한때 젊은 적이 있었다면, 그 혈기의 즙액은 모두 이 도시의 목마른 식도 속으로 빨려들어 갔으리라.”¹⁴

탄갱에서의 고된 노역과 젊은 시절 건강했던 신체를 모두 맞바꾸었음에도 여전히 가난의 굴레를 짊어진 사내의 허탈하고 기진한 뒷모습에는, 광부의 꼬임에 넘어가 빛나는 무기를 헌납하고도 버림 받은 채 말라죽어가는 검은 사슴의 모습이 겹쳐진다. 이 검은 사슴의 일화는 후반부에 광부 임이 잠시 아내와 남매를 함께 건사하며 짝막한 행복을 누리던 시기에, 딸인 의선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에서 반복된다. 그러나 단순한 반복은 아닌데, 광부들에게 버림받고 말라죽어가던 검은 사슴이 간신히 출구를 찾아낸 이후의 이야기가 덧붙기 때문이다.

열의 하나쯤이나 될까, 운 좋게 암반 사이의 가느다란 틈을 비집고 나와 꿈에도 그리던 하늘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상하게도 햇빛을 받자마자 이 짐승은 순식간에 끈적끈적한 진흙색 웅덩이로 변해버린다. 눈부터 빨갱게 녹아버리는 거다.¹⁵

출구를 간신히 찾는다고 해도 햇빛에 녹아버리는 검은 사슴의 말로는, 고향과 가족을 벗어나 탈출하려 해도 지

난한 삶과 두고온 고향에 대한 연민을 견디지 못해 죽음을 선택하는 의선의 운명을 예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몰래 발달장애가 있는 오빠를 홀로 남겨둔 채 가출했던 ‘그날 새벽’에 대한 기억은 의선을 끈질기게 따라 다닌다. 힘든 삶을 견디어 오던 오랜 인내를 내려놓고 서서히 미쳐가던 마지막 순간에도 의선은 오빠에게 입히려고 사두었던 두꺼운 외투를 잊지 않는다.

당초 ‘의선의 실종’으로 시작된 에피소드에서 드러나듯, 『검은 사슴』은 그들을 사라지도록 방치했다는 죄책감과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또 다른 한 축의 서사를 형성한다. 의선을 찾아 나선 명운은, 자신을 믿고 따르던 명아를 외면하고 자신이 살 길만 찾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삶이 망가진 인물이다. 그는 무기력하고 나약한 의선에게서 명아를 발견하고, 그녀를 돌보는 보호자의 역할을 맡는 것으로 해묵은 죄의식과 자책감을 만회하려 든다. 늘 한결 같이 타인과 거리를 두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던 인영도 마찬가지이다. 열한 살 무렵에 언니 민영을 제주 바다에서 잃었던 인영은 누구도 의지하거나 믿으려 들지 않는다. 생계를 유지하느라 정신없는 홀어머니를 대신해서 의연하게 민영을 돌보며 집안 살림과 학업을 병행했던 민영이 덧없이 죽자, 인영은 최대한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대책 없이 선택하고 타인에게 친절한 의선이, 그 선행과 배려 때문에 도리어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굶은일을 도맡는 것을 보면서 인영은 그녀를 돌보는 보호자의 책임을 맡는다. 이것이 민영에 대한 그리움을 치유하는 방식임은 물론이다.

『검은 사슴』은 실종된 주인공을 찾아 떠나는 인물들과, 그 안에서 생겨나는 떠난 이와 남은 이들 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사라진 사람들은 어디로 갔느냐’는 질문을 던진다. 부재하는 이들을 향한 남은 이들의 내면 풍경을 통해 뚜렷하게 부각되는 것은 그들이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떠나보냈다’는 것, 즉 열악한 삶의 조건 속에 이들을 방치한 채 외면했다는 부채감과 죄책감이다. 이에 실종된 이

14 『검은 사슴』, 132쪽.

15 『검은 사슴』, 478쪽.

를 찾아나서는 여정은 자기 내면의 죄책감을 대면하고 남은 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는 윤리적 수행이 된다.

3. 죽음의 일상화와 장소성의 복원

출구를 잃은 '검은 사슴'의 이미지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만, 작중에서 근본적으로 등장인물들의 불행을 초래하는 것은 탄광 지역 고유의 매몰사고 때문이다. 매몰 사고로 지하에 고립되어 사망했거나 죽음 직전에서 구조된 광부들이 일차적인 피해자가 되겠지만, 그 사고가 광부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이차적이라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앞서 살폈듯, 주인공 의선은 매몰 사고를 겪은 광부의 임의 딸이다. 임은 막장에서 단둘이 매몰되었던 동료 정의 가족을 돌본다. 그러나 정의 아내는 임과 동거를 시작하고 의선을 낳았음에도 사고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가출한다. 임이 아내를 찾아 떠도는 동안, 의선은 발달장애가 있는 오빠를 돌보며 사실상 방치된 채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기다림이 전부인 삶, 미래가 없는 삶을 견디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으나, 자기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오빠를 버렸다는 죄책감은 그녀를 항상 괴롭혔고 이는 의선이 지난한 서울살이를 겪으며 미쳐가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매몰 사고에 간신히 구출된 아버지가 끝내 진폐증으로 숨을 거두는 것을 지켜본 미회는 굳이 막장에 들어가 사진작업을 해야만 한다고 고집하는 장에게 이혼을 선언한다. 죽음이 상존하는 삶을 더 이상은 감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광산업의 전성기였던 1970~80년대 탄광의 매몰 사고는 방송과 신문지면에 빈번하게 등장하던 산업재해였다. 어둠 속에서 긴 시간을 견디고 구출되는 광부는 강인한 생명력의 화신으로 비취지고, 구출 과정은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휴먼스토리로 포장되어 떠들썩하게 보도 되었다. 계층이 어려운 매몰의 공포보다는, 먹고 마실 것이 없

는 환경에서 얼마나 견뎌느냐는 기록을 놓고, 가장 오래 견딘 기록과 견주어 보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도 '사고 이후'에 대해서는 묻지도 대답하지도 않았다. 그야말로 생명을 건 노동임에도 배상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탓에 사망, 중증 부상, 정신질환 등 사고의 여파는 고스란히 광부 개인과 그 가족이 감내해야만 하는 몫이 되었다. 이에 대해 작가 한강은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다.

“우리나라 광산사고가 선진국의 몇 배였을 것 같니. 사십 배야. 안전시설 미비, 관리 소홀.....무엇보다 채탄량에 따라 급여를 주는 도급제도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 생계비라도 타 내려면 죽기 살기로, 안전수칙을 모두 무시하고 일해야 하는 거야. (중략) 팔십일년 한 해에, 산업재해로 죽은 사람이 모두 천사백사십삼명이었어.”¹⁶

1981년 한 해에만 1443명. 광산업의 흥망이라는 '선적인 시간'에 묻힌 희생자의 일단을 보여주는 숫자이다. 이 숫자는 다시 생각건대, 전쟁이나 전투에 준하는 상황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매일의 노동에서 생겨났다. 그야말로 죽음이 일상에 상존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광부든 그의 가족이든 항상 어른 거리는 죽음의 그림자를 애써 외면하며 살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자칫하여 발을 헛디디면 빠져버리고 마는 비오는 날의 물웅덩이처럼 아주 범상한 모습으로 생과 공존하고 있다.

이렇듯 일상에 상존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어떤 모습을 띠는가. 그것은 반드시 죽음의 위협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만 출현하는 감정은 아닐 것이다. 다음과 같은 장면이 그 예이다.

한 삼십대 광부가 작업중 막장 사고로 죽었는데, 회사측에 의해 개인 과실로 처리되어 유족들은 보상금 한 푼 받지 못했

16 『검은 사슴』, 353쪽.

다. 동료 광부 세 사람이 복수를 계획했다. 그들은 조문을 온 광업소 간부 두 명을 영안실 내부에 감금했다. 그들은 간부들에게 시체의 오물-‘그게 뭘 말하는 걸까?’라고 인영은 궁금해 했다-을 먹였다. 사흘간의 감금에서 풀려난 간부들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 사람은 정신적 충격으로 다음날 죽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혼수상태에 빠졌다. 두 사람에게 육체적 외상은 거의 없다는 것이 그사건의 특징이었다. (중략)

명윤은 자신이 그 야만의 도시에서 며칠을 묵었다는 것에 전율을 느꼈다. 한 달에 삼십 명씩을 죽여 내보내는 막장이라는 야만이 있는 한 그곳은 비이성적인 공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¹⁷

광업소 간부를 죽은 광부의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에 가두고 오물을 먹이는 저러한 복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통해서 그 자신의 사후를 본, 산 자의 분노이다. 그리고 그 분노의 기저에는 떨쳐 버리려 노력할수록 강하게 의식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공포가 놓여 있다. 위의 인용은 ‘한 달에 삼십 명씩’ 죽어나가는 작업조건을 일상으로 취급하는 야만이 있는 한, 저렇듯 비이성적인 폭력이 생겨나는 것 또한 이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생에서사로 넘어가는 일이 그토록 쉬운 곳이라면, 이성적인 인내가 비이성인 폭력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일 또한 어려워 리 없다는 의미겠다.

탄광지대는 죽음의 일상화라는 이율배반적인 단어의 조합이 묵인되었던 곳이고, 그 일상적 죽음이 여러 매체를 통해 대중을 위한 스펙터클로 포장되어 제공되었던 곳이다. 허무한 죽음에 대해 모두 알고 있고 있었으나, 알면서도 문제 삼지 않았기에 없었던 일이나 다름없는 것이 되었다. 탄광업이 사양업종으로 돌아서는 산업 이행기가 윤리적 책임의 시간으로 재정위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작가 한강에게 그 책임의 첫 단계는 사라진 존재

들의 장소성을 복원하는 것이다.

“그때 나는 장의 배경으로 서 있는 조립식의 건물이 조용히 흔들리는 것 같은 착시를 느꼈다. 어느 날 갑자기 단단한 콘크리트 교사를 무너뜨렸던 갱도가 장의 발밑에 있었다. 어린아이들이 철봉에 매달리고 땀을 구르는 순간에도 이 운동장의 까마득한 밑바닥 암반 사이에서는 발파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을 것이다. 좀 전에 보았던 갱도의 숨막히는 어둠이 떠올랐다. 장은 운동장 가운데에서 있었지만 전혀 그 장소에 어울리지 않았다. 마치 그 어두운 땅속에서 방금 올라온 사람처럼,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다는 듯이 그는 우두커니 서 있었다.”¹⁸

황곡으로 의선을 찾아나선 인영은 지상과 지하의 두 세계가 합쳐지는 모습을 본다. 인용은 일행이 지나던 황곡의 초등학교 풍경이다. 암반 붕괴사고 때문에 무너져 정식 건물 대신 가건물로 지은 초등학교의 땅 아래에는 갱도가 병존한다. 지상 세계와 지하 세계의 병존을 보는 작가의 눈은 폭발음이 울리는 텅 빈 갱도 위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일상적 삶을 향한다. 아이들이 뛰어 노는 얼핏보아 평화로운 일상의 발밑에는 발파음이 울려 퍼지는 텅 빈 어둠의 세계가 존재한다. 그나마 ‘아이답게’ 유지되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평화이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교사와 운동장이 보여주듯 최소한의 일상에서도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상존하는 죽음과 그에 따르는 불안에 의해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의 일상도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강과 마찬가지로, 지상 세계와 지하 세계의 병존을 보았던 조지 오웰은 그 동시성에서 자본주의의 지옥도를 보았다. 영국의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석탄산업의 활황기에, 티타임을 즐기는 부유층의 한가로운 오후를 떠받치

17 『검은 사슴』, 360~361쪽.

18 위의 책, 223쪽.

기 위해 어둠과 열과 분진으로 가득찬 땅속에서 극한의 노동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그는 분노했다. 그의 관심은 당대 영국의 계급 차별과 소득에 따른 고통의 양극화에 있었으며, 이처럼 육박하는 고통의 현상이 존재하는 한 사회주의자도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특히, ‘하급 중산층’이라는 알량한 자신의 계급성이 그 스스로를 길들인 결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노동자 계급의 ‘냄새’를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했다.¹⁹ 아무리 이론으로 무장해도 자신의 몸 자체가 ‘벽’이 된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광산 노동자를 이해한다고 손쉽게 말하는 모든 정치인을 불신했다. 타자의 고통에 함부로 공감하거나 개입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역설적으로 그 계급적 간극을 줄이려 했다.

한강은 앞서 인용에서 보듯 지상과 지하를 한꺼번에 조망하는 장면이 황폐해지고 지친 장을 세워 놓는다. 돈에 의해 주문 제작되는 사진이 싫어서 막장에서 만날 수 있는 진짜 노동과 삶을 찍으려 황곡으로 찾아온 사진작가 장은, 『검은 사슴』이 공들여 만들어낸 인물 중 하나이다. 한편에 광부의 딸로 태어나 홀로서기를 위해 분투하다 가난과 고립, 가족에 대한 죄책감, 사회적 냉대 등에 지쳐 자살을 택한 의선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과거의 기억을 안고 마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삶을 견디며 남아 있는 장과 같은 인물이 있다. 젊은 시절 그는, 함부로 광부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댈 수 없기에 광산에서 살고 일하며 무엇보다도 생사의 위기를 함께 했다. 그는 광산마을 황곡에 남은 마지막 사람이며 그곳을 기억하고 증언할 자격을 지닌 작가이다. 황곡의 변화를 모두 지켜보았음에도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내는 그와 함께 할 미래를 두려워하며 떠났고, 가정과 맞바꾼 사진은 화재로 모두 사라졌다. 무엇이든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그 대상이 더 이상은 남아 있지 않다.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의 열정도 삶의 의지도 모두 잃은 채 더 이상 미래가 남아 있지 않은 그

의 모습은 탄광촌에 남은 이들의 보편적 심정을 대변한다.

4. 이행기의 윤리

탄광 지대에서 태어나 광산업의 몰락을 지켜보고, 그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한 시인이자 연구자는 한국의 광산업 정책이 갖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988년 전국 347개에 이르던 탄광은 1996년 11개로, 6만 2,259명의 탄광노동자는 1996년 말 1만 725명으로 감소할 만큼 폐광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탄광촌은 석탄이 유일 산업이었으니 공황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외국의 광부수입을 검토한 지 몇 년 만에 석탄합리화를 시작한다는 것은 정책의 부재를 증명한다. 석탄합리화를 앞서 시행한 독일, 영국, 일본 등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여 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우리나라의 갑작스런 폐광정책은 탄광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강원도는 석탄합리화 사업이 시작된 1989년부터 1996년까지 7년 동안 166개의 탄광이 문을 닫았으며 3만 여 명의 탄광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중략) 석탄이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산업전사’로 추켜세워지던 광부는 하루 아침에 ‘비합리적’인 신세로 전락하고, 산업전사에서 산업쓰레기로 용도 폐기되었다.”²⁰

앞서 살폈듯 ‘탄광산업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급속한 구조조정은 대규모의 실직자들을 양산하고 삶의 위기로 내몰았다. 최대 부양의 시점과 최대 조정의 시점이 저렇듯 가깝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정책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 인용문은 비인간적인 구조조정만큼

19 조지 오웰, 이한중 역, 『위건 부두로 가는 길』, 한겨레출판사, 2023.

20 정연수, 「버려진 광부, 떠나가는 사람들」, 『탄광촌 풍속이야기』, 북코리아, 2010, 351~354쪽.

이나 또다른 차원의 가혹한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광부들의 목숨을 건 노동은 주지하듯 ‘산업전사’라는 이름으로 상찬되었다. 오늘날 ‘산업전사’라는 명칭은 충분히 탈신화화된 용어이다. 그 명명에 따르는 국가 폭력의 측면, 즉 그것이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조건에서 노동을 착취하는 구조적 모순을 포장하기 위한 허황된 이름이라는 비판을 모를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광산업의 성쇠라는 이행기의 스펙트럼 속에서는 조금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산업전사’라는 허황된 이름조차 빼앗긴 사람들이 있다. 광산업이 영국 산업혁명의 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석탄업은 전후 한국의 근대화를 떠받친 동력이었다. 물론 광산업의 부흥기에 태백으로 삼척으로 몰려들던 사람들은,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은신처가 필요했을 수도 있다. 요컨대 ‘산업 역군’이 되고자 탄광촌을 찾아들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은 다름아닌 광부들이다. 그러나 지독하게도 열악한 비인간적 작업조건을 인간으로서 견뎌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광부 자신과 그의 가족들에게 사회적으로 부여되었던 ‘산업 역군’의 프레임이 다만 불필요하고 허황된 수식어였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비인간적 노동을 다만 가난과 생계의 인과 관계 속에 두지 않을 만한, 아이들을 천진난만하게 뛰어 놀게 만들만한 어떤 ‘명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광산업은 절정에 달하던 순간에 ‘비합리적’이며 더이상 쓸모없는 산업이 되었다. 광부들은 다만 정리되어야 할 사회적인 잉여물이자 부담스러운 짐이 되었다. “산업전사에서 산업쓰레기로 용도 폐기되었다”는, 앞서 제시한 인용문의 격앙된 표현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결국국은 지상에서 설 자리가 사라지자 자연스레 사람들도 사라졌다. 사람이 사라졌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을지도 모른다. 허나, 문자 그대로 생명을 갈아 넣었던 젊은 시절의 흔적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 상태는 무엇이라 불러야 옳을까. 광산업이 사양길에 들어 자취를 감추었다는 의미

에서도, 혹은 사회적으로 그 역할을 잃었다는 의미에서도 그 시간은 소멸되었다. 요컨대 산업이행기 광산업의 성쇠는 관련 산업종사자들의 물질적·정신적 착취는 물론이고 존재론적 착취라 할 만한 폭력성을 내포한 사건이다.

문학은 근본적으로 과거형으로 쓰인다고 할 때, 이는 비단 완결된 사건을 조망하는 거리감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선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잊힌 것이나 과거에 두고 온 것에 대해 현재적 책임을 짊어지는 이로서 그 시간 속에 기꺼이 잔류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한강, 『검은 사슴』, 문학동네, 2017.

한강, 『여수의 사랑』, 문학과지성사, 2012(재판).

2. 단행본 및 논문

김병익, 『희망 없는 세상을 고아처럼』, 『여수의 사랑』, 문학과지성사, 2012(재판).

김아람, 「1960~1970년대 석탄산업 정책과 동원탄좌」, 『역사문제연구』 42, 역사문제연구소, 2019.10.

이영재, 「이행기 정의의 본질과 형태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2(1),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2.

정연수, 「버려진 광부, 떠나가는 사람들」, 『탄광촌 풍속이야기』, 북코리아, 2010.

조지오웰, 이한중역, 『위건 부두로 가는 길』, 한겨레출판사, 2023.

최정기, 「과거청산에서의 기억전쟁과 이행기 정의의 난점들」, 『지역사회연구』 14(2), 한국지역사회학회, 2006.

홍춘봉, 『탄광촌 공화국』, 노동일보, 2002.

Abstract

Extinction and Remains, Han Kang's *Black Deer* Reads as a Scenery of the Industrial Transition

Joung, Ju-A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reads Han Kang's first novel, *Black Deer*, from the destruction of workers' lives caused by the restructuring of the mining industry during the period of industrial transition. Although the term "industrial transition" is commonly used in a neutral sense to denote the generational shift of leading industries, it is in fact a period marked by structural violence, in which those who fail to adapt to social change are left behind and experience large-scale devastation of their lives as old industries collapse and new ones emerge. *Black Deer* depict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through which those once praised as "industrial warriors" come to be treated as surplus members of society.

This article focuses on two main issues. The first concerns the sense of debt and guilt that exists between those who have left the mining village and those who remain. Han portrays how those who abandoned their families to escape poverty and death are unable to free themselves from the past because of those they left behind "there." The stories of runaway or missing miners' daughters and disintegrated families form the core of this theme. The second issue is an ethical mourning for those who were forced to endure a life in which death became routine, while countless industrial accidents were socially tolerated in the name of industrial growth alone.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industrial transition, the rise and decline of the mining industry constitutes a violent process that entails not only physical and psychological exploitation but also ontological exploitation.

Keywords Han Kang, *Black deer*, industrial transition period, Gangwondo Taebaek, coal mining industry, restructuring of the coal mining industry